

# 새해엔 시내버스가 친절해진다?

### 전주시, 이달부터 고정배차제 전면 시행 운전원 1일 2교대제 변경 8~9시간 근무

전주시내버스가 더욱 친절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부터 버스노선이 고정배차로 변경되고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

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주시내버스 123개 노선이 공동배차제에서 고정배차제로 변경되고 운전원 969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50명이 근무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1일 2교대로 근무

무형태가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 업체의 이익 중심의 공동배차제에서 고정배차제로 변경된다.

기존 공동배차제는 전주시내버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했던 노선 운

영방식으로 업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일 바뀌는 노선 때문에 운전원의 노선에 대한 숙지도가 낮고 책임감이 결여돼 불친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시는 버스회사별로 고유의 노선을 배분해 업체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운전원의 노선에 대한 숙지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

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전원들의 근무형태도 기존 하루 1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에서 하루 8~9시간 근무하는 1일 2교대로 점차 확대된다.

앞서, 시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피로에서 비롯되는 불친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일 2교대 도입을 적극 추진, 절반에 가까운 운전원이 1일 2교대제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도 친절기사 선정을 통해 친절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불친절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고정노선제와 1일 2교대제, 친절기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서비스 개선여부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현대 FC 조세 모라이스 신임 감독 취임 기자회견이 3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백승권 단장에게 기념 유니폼을 선물받고 있다.

## 모든 버스노선,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된다

### 전주시, 내달 1일부터 탑재형 무인CCTV 활용 단속 강화 기존 3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단속 확대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전주시는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시간과 단속구간, 단속지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단속 노선이 전체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되고 단속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단속지점도 기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촬영이 가능한 승강장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

터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월 한 달 간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버스 알람단말기에 안내하는 등 집중홍보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조건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승강장 앞 버스베이에 주·정차된 차량 중 2회 이상 연속 촬영된 차량으로 한정되면서 단속효과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속구간과 단속지점, 단속시간

을 확대기로 결정했다. /송효철 기자

### 지갑 훔친 피의자 붙잡혀

택시에서 지갑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18년 12월 12일 오전 1시 12분경 군산시 B동 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 후, 뒤 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모씨(25)소유의 현금 2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절취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경 A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 환자가 자리비운 틈에

### 병원서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피의자 붙잡혀

환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45)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2시 45분경 전주시 완산구 B병원에서 피해자 C모씨(62)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캐비닛 위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도합 3회에 걸쳐 30만여 원을 부정사용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일 오후 2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 '딸 화장실 잠금 살해' 30대 여성 구속

### 아동학대 혐의 "도주 우려 있어"… 친부도 딸 학대

4살배기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A모씨(34)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성 판사는 3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모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모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신곡동 자택에서 B모양(4)이 바지에 소변을 똥다며 깨우자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받도록 했다.

B모양이 4시간 뒤 쓰러졌지만 A모씨는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뒤늦게 119에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전에는 의식이 있어 괜찮은 줄 알았고, 오후 3시에 보니 의식이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모양은 친부(A모씨의 전 남편)인 C모씨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모씨는 지난해 6월 B모양의 머리를 쥐어박았다가 A모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훈 기자

이 가운데 A모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각각 8세와 3세, 2세였던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아동방임 사실이 드러나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전적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조치로 임시보호소에 입소한 아이들은 쉼터와 영아원 등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으나, 지난 2018년 5월 3일 A모씨의 요청으로 가정에 보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복귀 결정 이유와 사후 관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아이로부터 B양 사망 전 학대 정황에 대한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며 "폭행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부검 결과 B모양의 전두부와 후두부에서 폭행의 흔적인 다량의 혈종(피멍)이 발견돼 사인으로 자목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A모씨는 "아이가 지푸 잘아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튼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석훈 기자

## 군산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군산시 금강호에서 지난 12월 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해 담당 지역의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방·검사, 이동통제,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하루에서 이틀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석훈 기자

## PC방에서 여성 손님 추행 2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운범 판사)은 PC방에서 여성 손님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모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A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모씨는 2018년 6월 9일 오전 4시 50분경 전주시 객사길 한 PC방에서 게임

을 하던 10대 B모양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C모씨의 신체를 발가락으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QR코드
- 편의점
- 신용카드(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